

메시지 12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

성경: 렘 31:31-34, 히 8:8-12, 롬 8:2, 28-29, 12:1-2

I.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예언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책이면서 또한 신약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들인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고 취해야 한다 — 렘 31:31-34, 히 8:8-12.

A. 새 언약 안에는 네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1.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는 것과 우리의 죄들을 잊으시는 것(용서하시는 것) — 히 8:12.
2.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심으로 생명의 법을 넣어 주시는 것 — 히 8:10상.
3.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특권 — 히 8:10하.
4. 생명의 내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기능 — 히 8:11.

B. 죄들의 용서는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들의 용서를 맨 마지막에 둔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통해 오는 씻음을 가장 먼저 얻는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법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인식을 갖는다 — 비교 히 8:12.

II.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히 8:12, 렘 31:34하.

A.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진정시키시기 위해, 곧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 — 히 2:17.

B.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모든 것에 효능 있는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 요일 1:7-9, 2:1-2.

1. 주님의 구속하는 피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히 9:12, 14).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효능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메시지 12 (계속)

2.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신성한 빛으로 비춤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반복하여 양심 안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끊임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워 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죄의 고발을 없애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요 5:24.
 - a.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 — 시 103:12, 레 16:7-10, 15-22.
 - b.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 — 시 130:4, 눅 7:47.
- C.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 주며, 원수의 모든 비난을 이긴다(출 12:13, 엡 2:13, 뱀전 1:18-19, 히 10:19-20, 22, 9:14, 요일 1:7, 9, 계 12:10-11).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또한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는 피로 예표된 영원한 언약의 피이다(마 26:28, 히 13:20).
1. 언약의 피는 우리가 실질적인 지성소(히 10:19-20)인 우리의 영(엡 2:22, 딤후 4:22)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2.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는 언약의 피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린다.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끈다!
 3. 언약의 피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뭇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 비교 시 27:4, 73:16-17, 25, 고전 2:9, 히 10:19-20.
 4. 결국 새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마 26:28, 눅 22:20)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에 속한 더 좋은 것들 안으로 인도한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분의 영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분의 본성과 생명과 속성들과 미덕들을 가리키는) 내적인 생명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렘 31:33-34, 겔 36:26-27, 히 8:10-12).

5. 궁극적으로, 영원한 언약(히 13:20)인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며(9:14), 하나님의 백성을 현재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들의 목(생명나무와 생명수)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데로 이끈다(계 7:14, 17, 22:1-2, 14, 17).

Ⅲ.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 히 8:10, 렘 31:33상.

- A. 새 언약의 초점 혹은 중심은 내적인 생명의 법이다. 신성한 생명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롬 8:2)은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법칙과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 B.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 곧 자동적인 법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었다 — 롬 8:2-3, 11, 34, 16.
- C.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생명의 법에 근거한다. 모든 생명은 법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법 자체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며, 이 생명의 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 — 비교 잠 30:19상, 사 40:30-31.
- D. 주제가 생명의 영의 법(2절)인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1.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법으로 계신다. 이 법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운행하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이다 — 롬 7:18-23, 8:2.
 2.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을 누린다 — 렘 31:33, 히 8:10, 롬 8:2-3, 10, 6, 11.
 3.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릴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린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 롬 8:2, 28-29, 12:1-2, 11, 빌 1:19.
- E.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가장 높은 이 생명의 가장 높은 법(단수형—렘 31:33)을 우리의 영 안으로 넣으신다. 그리고 이 법은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같은 속부분들 안으로 확산되어 몇 가지 법들(복수형—히 8:10)이 된다.

메시지 12 (계속)

1. 이 법을 우리 안에서 확산되게 하는 것이 분배하는 것이며(롬 8:10, 6), 분배하는 것은 새기는 것이다(고후 3:3). 주님은 확산시키시고 분배하시고 새기시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아담의 옛 요소를 감소시키시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새 요소를 더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신진대사적으로 생명의 변화를 성취하신다 — 고후 3:18.
 2.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작용과 확산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다. 생명의 법의 작용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 롬 8:2, 29.
- F. 우리가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그분을 접하는 동안, 생명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용한다 — 빌 2:12-13, 롬 8:2, 4, 6, 13-16, 23, 살전 5:16-18.
1. 우리는 스스로 분투하고 애쓰는 것을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 갈 2:20상, 비교 롬 7:15-20.
 - a. 죄가 하나의 법이고 우리의 의지로는 이 법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갇혀 결코 로마서 8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 b. 바울은 거듭거듭 원했지만, 그 결과는 다만 반복되는 실패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결심하는 것이다 — 롬 7:18.
 - c. 죄가 우리 안에 잠복해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 롬 7:21.
 - d.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 롬 8:6, 4, 빌 2:13.
 2.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의지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고,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 롬 10:12-13, 살전 5:17, 엡 6:17-18.
 - a.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그분 안에, 곧 모든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 빌 4:13, 23.
 - b. 우리의 영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주님을 주목해야 하고, 기도하여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얼굴에 잠겨야 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적셔져야 하고, 그분의 탁월함을 비추어 내야 한다 — 고후 3:16, 18, 비교 마 14:23.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 (계속)

- G. 생명의 법의 기능을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이 요구된다. 이것은 생명이 자랄 때에만 생명의 법이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막 4:3, 14, 26-29.
1.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안으로 뿌리신 생명의 씨에 자극을 준다 — 히 7:25, 롬 8:34.
 2. 만아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뿌리신 생명이 자극을 받아 자라고 발전하고 우리의 모든 속부분들을 적셔서, 결국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고 높여진 존재로 완전히 침투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3.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태 짓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한다. 생명의 법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제한다 — 롬 8:2, 29.
 - a. 내주하시는 원형이신 하나님의 만아들은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곧 우리를 ‘아들화’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아들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필사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 b. 이 원형을 대량 재생산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살아 있는 원형이신 만아들을 우리의 전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원형과 협력하고 이 원형에 우리 자신을 연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밖으로, 곧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실 것이다.
 - c. 만아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대량 재생산하기 위한 원형 곧 표준 모형이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서, 표준 모형이신 하나님의 만아들의 단체적인 재생산과 표현을 위해 새사람인 그분의 몸을 구성한다 — 롬 8:29.
 4.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이 자라는 동안에,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IV.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 히 8:10, 렘 31:33하.

A.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14.

1.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창 1:26-27, 롬 9:23-24). 그러므로 그릇의 내용이 그릇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이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 잔의 몫이시다(시 16:5).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새롭게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회년에 그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상징된다(레 25:10, 눅 4:18-19, 15:17-24, 행 26:18, 골 1:12).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에 대해 미리 맛보게 하신다(고후 1:22).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우리의 충만한 누림으로 얻을 때까지, 그 영의 보증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조금씩 더욱더 우리 안으로 더해지신다.

B.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11, 14, 18, 3:21.

1.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뿐 아니라(엡 1:14),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11절).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것이 곧 변화이며, 또한 주관적인 거룩하게 됨이다.
3.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도장으로써 우리 안에 찍으시어(엡 1:13) 우리에게 표시해 두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도장은 살아 있으며,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킨다.
4.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유업은 영원히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엡 1:18).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표현이 되어, 우주적으로 영원히 극도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계 21:11).

V.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 히 8:11, 렘 31:34상.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 (계속)

- A. 생명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의해 안에서부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혹은 의식이다 — 롬 8:6, 엡 4:18-19, 빌 3:10상.
1. 생명의 감각은 신성한 생명(엡 4:18)과 생명의 법(롬 8:2, 히 8:10)과 그 영의 기름바름(요일 2:27)에서 비롯된다.
 2. 생명의 감각은 부정적인 방면에서 죽음의 느낌이고,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다 — 롬 8:6, 사 26:3.
 3.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인 죽음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 안에서 생명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4.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 창 2:9.
 5. 생명의 감각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 B.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반드시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배워야 한다. ... 오직 생명나무를 접촉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생활과 일이 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위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96-97쪽)
- VI. 궁극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는 영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롬 8:2, 28-29, 12:1-2, 11:36, 16:27, 빌 1:19, 비교 갈 4:26-28, 31.